

다문화 가정 자녀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교수전략 개발

Instructional Strategy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Marriage Home Childr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Behavior Traits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Jong-Choul Kim(ollab@hanmail.net)

요약

국제결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2세대들이 사회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에서의 행동특성을 분석하여 언어, 정서, 또래관계, 집중력 등의 발달 수준이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지도를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 중심어 : 국제결혼 | 다문화 | 다문화 가정 | 보육지도 | 교수전략 | 2세대 |

Abstract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 have been caused by the second generation . Because the second generation make a conflict with the existing social systems. So we should study about the second generation before they grown up.

This Paper compared the behavior traits between international marriage home children and pure korean home children especially in the area of language expression, peer relationship, learning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developed instruc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marriage home children.

■ keyword : | International Marriage | Multi Culture | Multi Culture Home | Instructional Strategy | Second Genera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교육, 문화, 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교육풍토와 제도 및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이혼 가정의 급증,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별거가정 등의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민족이라는 순수 혈통을 강조해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국제결혼 건수는 1997년에

* 본 글은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7)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12,448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1.1%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2007).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건강한 사회 구성체의 일원이 될 때 우리나라 전체 사회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처한 문제나 애로점을 찾아서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상당수 가정의 경계가 취약하다는 점과 결혼 대상 외국인이 대부분 여성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은아(2008)는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는데,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 어려움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숙제도와주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풍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관심사도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좋은 성과를 내느냐로 집약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 가정 2세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2세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대다수 친인척이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받고 무시당하면서 자라게 된다는 아동기 때에 제대로 된 학습에 관련된 기초 능력의 발달이 지나치게 늦을 경우 자아와 인성의 형성 및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아실현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여지가 있다

다문화화를 수용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겪는 공통점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할 때 적응하지 못하거나 차별받거나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자라는지의 여부가 이들이 향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kwkf 적응할지의 여부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 주느냐에 의해서 상당부분 결정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방법 중의 하나는 이들의 학교사회에의 적응이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취학 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취학 전인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이나 성과 등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 자녀들의 적응과 학업 성취도와와의 비교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를 비교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보육시설에서의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 상태를 상호 비교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이 보육 시설에서 일반 가정 아동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수전략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8년 10월에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서천군, 공주시, 서산시, 연기군, 당진군, 부여군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설문지 제작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3개소를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측정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를 인터뷰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만들었다.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를 한꺼번에 보육하고 있는 담당 교사가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에 의한 발달 수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아동을 만 4세아에 한정하였다.

효과적인 교수전략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 시 성공적인 사례들을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리한 바에 기초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반 아동수가 142명 그리고 영아반 아동수가 62명이다. 유아반 아동수가 많은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은 일본, 필리핀, 중국, 베트남 순이며, 영아반 아동수가 많은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의 순이며, 조사 대상이 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부모 출신국 중심의 다문화 가정 자녀 수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	유아반 아동 수			영아반 아동 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베트남(26)	6	4	10	9	7	16
중국(41)	20	11	31	9	1	10
필리핀(49)	14	17	31	15	3	18
일본(67)	17	44	61	4	2	6
태국(7)	2	2	4	2	1	3
네덜(2)					2	2
우즈베키스탄(1)				1		1
대만(5)	1		1	2	2	4
몽골(2)					2	2
캄보디아(1)		1	1			
미국(3)		3	3			
합 계	60	82	142	42	20	62

2.2 분석 내용

설문지 분석 내용은 언어표현력, 또래 관계 및 친구 관계, 학습 집중력,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이며, 항목에 따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분석 항목 및 문항

분석 항목	수준	분석 문항
언어 표현력	1 수준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한 두 마디 단어로 대답한다
	2 수준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4-5개 단어를 나열하여 대답한다
	3 수준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상황과 문장에 맞게 대답한다
	4 수준	선생님이 지시나 질문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또래 관계 및 친구 관계	1 수준	친구들과 놀이나 상호작용이 매우 적다
	2 수준	친구들과 놀이나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3 수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환행위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4 수준	친구들과의 놀이를 주도할 수 있고 놀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쉽게 해결한다
학습 집중도	1 수준	선생님의 말을 조금 알아듣고 주위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2 수준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만 주위집중 시간이 대체로 짧다
	3 수준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대로 집중하여 활동한다
	4 수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응용해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며, 배운 것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한다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	1 수준	같은 성이나 다른 성끼리 매우 드물게 어울린다
	2 수준	같은 성끼리만 어울린다(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3 수준	주로 같은 성과 어울리다가 가끔은 다른 성과도 어울린다
	4 수준	성별 구분 없이 두루 잘 어울린다

II.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간의 행동 특성 비교 분석

1. 언어표현력 분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 두 마디 단어로 대답하거나 표현하는 1수준 비율이 21.8% 인데 비하여 일반 가정 자녀는 9.4%에 해당되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낮은 언어 표현력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4 수준의 표

현력을 가진 아동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18.4% 인 반면에 일반 가정 자녀의 경우는 35.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언어 표현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표현력은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이 한국의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높고,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한국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낮으며, 중간 수준은 상호 비슷하다.

표 3. 유아반(만 4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표현력

수준	문항	다문화 가정의 아동수 (비율)	일반 가정의 아동수 (비율)
1 수준	1수준 :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한 두 마디 단어로 대답한다	19명 (21.8%)	36명 (9.3%)
2 수준	2수준 :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4-5개 단어를 나열하여 대답한다	22명 (25.3%)	79명 (20.5%)
3 수준	선생님이 지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상황과 문장에 맞게 대답한다	30명 (34.5%)	135명 (35.1%)
4 수준	선생님이 지시나 질문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16명 (18.4%)	135명 (35.1%)
계		87명 (100%)	385명 (100%)

2. 또래관계, 친구관계 분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친구들과의 놀이나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2수준이 경우 30.7% 인 데 비하여 일반 가정 자녀는 14.9%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의 놀이를 주도할 수 있고 놀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쉽게 해결한다' 4수준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13.3%인 데 비하여 일반 가정 자녀의 비율이 26.6%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비중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또래관계, 친구관계는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이 한국의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높고,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한국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낮으며, 중간 수준은 상호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친구관계

수준	문항	다문화 가정의 아동수 (비율)	일반 가정의 아동수 (비율)
1 수준	친구들과 놀이나 상호작용이 매우 적다	8명 (10.7%)	38명 (9.1%)
2 수준	친구들과 놀이나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23명 (30.7%)	62명 (14.9%)
3 수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환행위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34명 (45.3%)	206명 (49.4%)
4 수준	친구들과의 놀이를 주도할 수 있고 놀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쉽게 해결한다	10명 (13.3%)	111명 (26.6%)
계		75명 (100%)	417명

3. 학습 집중도 분석

학습 집중도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만 주의집중 시간이 대체로 짧다'의 2수준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비중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높고, 4수준의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응용해서 다른 걸 해 보려고 하며, 배운 것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한다'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중이 일반 가정 자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반(만4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습태도

수준	문항	다문화 가정의 아동수(비율)	일반 가정의 아동수(비율)
1 수준	선생님의 말을 조금 알아듣고 주위 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13명 (16.9%)	52명 (12.6%)
2 수준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만 주위 집중 시간이 대체로 짧다	22명 (28.6%)	84명 (20.4%)
3 수준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대로 집중하여 활동한다	28명 (36.4%)	163명 (39.6%)
4 수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응용해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며, 배운 것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한다	14명 (18.1%)	113명 (27.4%)
계		77명 (100%)	412명 (100%)

4.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 분석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는 1, 2수준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중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조금 높고, 3

수준은 상호 비슷하며, 4수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중이 일반 가정 자녀의 비중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6. 유아반(만4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

수준	분 황	다문화 가정의 아동수 (비율)	일반 가정의 아동수 (비율)
1 수준	같은 성이나 다른 성끼리 매우 드물게 어울린다	8명 (11.1%)	21명 (5.9%)
2 수준	같은 성끼리만 어울린다(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13명 (18.1%)	43명 (12.1%)
3 수준	주로 같은 성과 어울리다가 가끔은 다른 성과도 어울린다	22명 (30.6%)	111명 (31.4%)
4 수준	성별 구분 없이 두루 잘 어울린다	29명 (40.3%)	179명 (50.6%)
	계	72명 (100%)	354명 (100%)

III.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수전략 개발

1. 시범과 반복에 의한 교수전략

다문화가정 자녀 중 1, 2 수준에 있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2-3단어 이상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나 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언어 표현의 속도가 느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표현력의 문제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질이나 양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어머니의 부정확한 어투에 영향을 받아 아이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언어표현능력이 느리게 될 경우 언어 표현 이후에 수반되는 학습활동도 느리게 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느리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학습 속도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수전략은 1:1 반복적인 지도 방법이다. 교사와 아동의 1:1 대응은 교사의 아동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또한 개별화된 맞춤

형 지도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교수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인 어머니를 둔 만 1세, 만 2세 두 자매의 경우 언어로 감정표현을 할 때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억양이 높고 소리의 높낮이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았으나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재표현해 주었을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언어 표현력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5세 아동은 4세부터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해 왔다. 그 아동은 입학 당시 언어 표현이 또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졌으나 듣기는 비교적 잘 하였다. 이에 원의 모든 교사가 아동과 눈을 맞추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시범을 보이고 그 아동으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였다(학습이란 느낌이 들지 않게 놀이식으로 유도). 그 결과 입학 1년이 지난 현재는 또래 아동과 별 차이 없는 언어 표현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초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다시 물어보는 일이 많았다. 원의 교사는 아동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두세 번 씩 반복하여 들어주고 표현하고 피드백 해주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은 발음도 정확해지도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차이와 다름에 대한 교수전략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초기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혼자서 지내거나 2-3명이 지내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아이들이 피부색이나 땀색 등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차별하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다른 피부색 등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차별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들에게 적절한 자녀 지도 지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유아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친구관계 및 또래 관계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교수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어린이 집에서는 다른 유아들에 비해 피부색이 약간 검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 아동의 얼굴색이 다르고 이상하다며 놀기 싫다고 하였다. 이에 원의 교사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람은 서로 다르며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 주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 아동을 놀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은 놀이하는 도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경우 "야 너 냄새나"와 같은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냄새 여부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과 일반 아동을 구분 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원의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서 나는 냄새를 확인해 본 결과 세탁 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들에게 세탁 시 좋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도록 부모 상담을 통하여 권장하였고,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각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냄새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다.

3. 칭찬과 모델화에 의한 교수전략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집중력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우수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2개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유연성이나 창의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뛰어난 경우도 많다.

발달 수준이 낮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주로 해주고 뛰어난 수준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모델화시켜 줌으로써 다른 아동들이 이를 따라하고 모방하게 함으로써 차이에 대한 위화감의 제거와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가정 자녀들보다 뛰어 날 경우에는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칭찬과 격려 그리고 아이의 언행을 정당화 시켜 주어야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칭찬과 모델화 전략이다.

이와 관련된 보육지도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창작 시간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무조건 "못해요"부터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원의 교사가 칭찬을 많이 해주었더니 어떤 것이든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의 한 아동은 처음엔 너무 밝고 지나칠 정도로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도리어 일반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선생님, 영주 왜 그래요?"라고 질문을 자주 했다. 그런데 원의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 칭찬을 해주자 지금은 아이들이 "영주가 예뻐요!"라고 도리어 칭찬을 하었다고 한다.

한 어린이 집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뛰어 날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김새와 모습 즉, 피부색, 머리모양, 언어 사용 등을 보고 따라 하면서 놀리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원의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의 비난이 칭찬이나 부러움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VI. 결론

언어표현력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1수준과 가장 높은

4수준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관계 및 친구관계, 학습 집중력, 다른 성과 어울리는 정도에 있어서 2수준과 4수준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3수준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의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이 일반가정 자녀의 비율 보다 높고, 발달의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이 일반가정 자녀의 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표현력에서의 차이가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상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보육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낮은 성장발달 수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1:1 지도 방식, 반복 지도방식, 칭찬, 다문화 수용 분위기 조성, 부모와의 연계 등을 통해 보통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의 성장발달 수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칭찬, 참여유도, 다문화 수용 분위기 조성, 부모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의 성장발달 수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칭찬, 모델화, 다문화 수용 분위기 조성, 타월성 인정, 부모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정책개발원, 2006.

이은아,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지원방안”,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와 사회문화적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고려대학교 사회학과 BK21사업단, 2008.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저 자 소개

김 중 철(Jong-Choul Kim)

정회원



- 1983년 8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석사)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박사)

• 2001년 4월 ~ 현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관심분야> : 인력개발, 여성정책, 보육, 프로그램 개발

참 고 문 헌

- [1] 김종철,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7.
- [2] 김종철, “충남기초자치단체 시범성별영향평가 - 아산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충남여